



인터넷 대화의 시민성 활성화 효과*

언론매체 이용이 인터넷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읽기와 쓰기가 학습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이종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상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황현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인터넷에서 동료 시민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또한 그들의 글을 읽는 행위는 시민적 역량과 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 연구는 언론매체 이용과 인터넷 상의 시민 간 대화가 공적 사안에 대한 학습과 정치적 참여를 돕는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조사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자료는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전후로 패널 조사를 통해서 얻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보적 뉴스채널을 이용할수록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가 증가했다. 또한 진보, 중도, 보수 등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뉴스를 이용할수록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둘째, 조사 참여자가 선택한 뉴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인터넷 공동체, 교류매체, 전언매체 등에서 동료 시민의 글을 읽는 빈도가 증가했다. 셋째,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는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넷 글쓰기는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쓰기는 사회집단 참여와 더불어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적 참여활동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결과를 언론매체 이용과 시민 간 대화가 시민성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핵심어: 언론의 공정성, 인터넷 토론, 정치참여, 정치학습, 시민성

* 이 논문은 저자들이 2017년 한국신문협회 창립 60주년 세미나에 발표하고 사후 정책보고서로 출판한 〈신문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사용한 자료를 재분석하고 이론적 논의를 새롭게 더한 것입니다. 논문의 초고를 2018년 8월 25일 한일언론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8S1A5B8070398)을 일부 받았습니다.

** jwrhee@snu.ac.kr

1. 문제 제기

모든 시민권자가 높은 시민성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도 할지라도 정치적 참여에 무심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참여가 기여하는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 시민으로서 누리는 법적 지위와 권리와 구별되는 시민으로서 됨됨이, 즉 “바람직한 활동으로서 시민성”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다(Kymlicka & Norman, 1994, p.353).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정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만 갖추어서 되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량과 덕성, 즉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해서(Dahl, 1989; Delli-Carpini, & Keeter, 1996; Neuman, Bimber, & Hindman, 2011), 시민성을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과 덕성이 활성화한 정도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e)이란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 수집, 평가, 학습 등의 활동과 다른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cLeod, 2000; Shah, McLeod, & Lee, 2009). 시민적 덕성(civic virtues)은 다른 시민과 협동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조화롭게 생활하는 덕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예를 들어 참여, 신뢰, 관용 등을 말한다(Barber, 1984; Gronlund, Setala, & Herne, 2010). 다시 말해, 민주적 시민성이란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동료 시민과 토론을 나누는 시민들이 다른 시민과 조화롭게 지내며 사회정치적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민주적 시민성 중에서도 특별히 시민 간 대화와 토론에 의한 효과에 집중한다. 지난 20년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읽고 쓰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 간 대화와 토론이 시민적 참여의 토대가 된다는 관찰이 있다(강내원, 2004; 민영·노성중, 2013; 황용석, 2001; 하종원, 2006).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이 인터넷에서 읽고 쓰는 담론 공중들의 활발한 사회정치적 참여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의도 제시된 바 있다(이준웅, 2005).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공동체, 블로그, 교류매체 서비스, 메신저 등에서 공적 사안에 대해 글을 쓰고, 다른 이들의 글을 읽는 공중은 시민적 학습을 통해서 소통의 효능감을 얻으며, 이런 효능감에 기초해서 실제 정치적 사안에 관여하고 참여하기도 한다. 인터넷 토론을 통해서 공적 사안에 대해서 배우고,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적 참여 동기를 갖게 되면서 진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모여 있는 군중과 대중과는 달리, 인터넷에서 일상적인 담론적 실천을 통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연결된 공중의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과연 인터넷에서 다른 시민의 글을 읽고 스스로 쓰는 경험을 가진 시민들의 시민의 역량과 덕성은 증가하는가? 이 연구는 기존의 시민성 논의를 확장해서 시민성을 활성화하는 설명 요인으로서 언론매체 이용과 인터넷을 통한 대화에 주목한다. 또한 대화가 지식 습득과 참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언론매체가 제공한 뉴스를 읽은 시민들은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배양하고, 그에 대해 동료 시민과 의견을 교환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참여적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매체 이용과 그에 따른 시민 간 대화가 공적 사안에 대한 학습을 돕고 정치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지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2. 연구 질문과 가설의 도출

1) 대화와 시민성

시민들이 언론을 접하고,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다른 시민들과 대화를 나눔에 따라 시민성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언론학자 캐츠(Katz, 1992, 2006)는 19세기말 불란서 범죄학자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의 오래된 주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언론-대화-의견-행동’을 연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시민참여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요컨대 (가) 언론보도가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자극하면, (나) 뉴스를 읽은 개인들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다) 개인 간 대화는 의견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이는 결국 (라) 시민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츠와 그의 동료들(Kim, Wyatt, & Katz, 1999; Wyatt, Kim, & Katz, 2000)은 이 주장을 미국적 맥락에서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대화나 사안에 집중한 토론 뿐만 아니라 일상의 개인적 대화도 정치적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언론보도를 비롯한 엘리트 담론에 의해 촉발된 시민 간 대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이상화된 버전을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절차적 규범성과 내용적 충실성을 갖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스스로를 교육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 결정에 기초가 되는 합의를 산출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체다(Delli-Carpini, Cook, & Jacobs, 2004; Fishkin, 1999). 속의 민주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정한 토론의 규칙을 따르며 서로 의견

을 교환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변경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를 산출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얻기도 했다 (Farrar et al., 2010; Luskin, Fishkin, & Jowell, 2002). 속의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모든 대화가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속의 민주주의 연구자들과 약간 다르게, 현실에서 시민 간 대화가 반드시 절차적 규범성과 내용적 충실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뉴스 이용의 맥락에서 발생하며, 이런 대화가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낳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시민 간 대화의 경험적 조건들을 탐색하고, 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탐구해 왔다.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성으로 신문 이용과 면대면 상호작용이 속의적인 정치적 대화를 증진한다는 결과(Moy & Gastil, 2006), 양질의 대화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생각을 정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Gastil & Dillard, 1999), 뉴스 이용과 정치 토론이 정치적 학습과 참여를 돕는다는 결과(Scheufele, 2000), 대화 자체도 그러하지만 전략적 자세가 아닌 이해를 추구하는 대화가 시민적 참여를 낳는다는 결과(Rojas, 2008) 등이 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시민 간 대화가 언론매체 이용과 시민적 참여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론적 전망을 가지고 탐구하는 이들이 있다(McLeod, Scheufele, & Moy, 1999; Shah, Cho, Eveland, & Kwank, 2005; Shah et al., 2007; Sotirovic & McLeod, 2001). 예를 들어, 맥클라우드와 동료들(McLeod et al., 1999)은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communication mediation model)'을 구성해서, 시민의 면대면 대화가 매체이용과 정치사회적 참여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다. 샤와 동료들(Shah et al., 2005)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경성뉴스(hard news)를 이용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면대면 대화와 인터넷 대화가 증가함을 확인하고, 이 두 종류의 대화가 결국 시민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샤와 동료들(Shah et al., 2007)은 또한 후속 연구에서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campaign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을 제시해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구체적으로 뉴스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정치광고 이용도 면대면 및 인터넷 대화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활성화된 대화를 통해서 정치 참여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은 인터넷 교류매체 이용에도 적용됐다. 예를 들어, 로자스와 푸이그이에이브릴(Rojas & Puig-i-Abril, 2009)은 뉴스 사이트에 코멘트 달기, 정치 블로그에 의견 올리기,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기 등 행위가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과 시민적 참여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합된 정치 토론(integrated political discussion)'

이란 구성개념으로 확장해서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의 기본 효과 과정을 재검증하는 데 성공한 연구도 있다(Yamamoto & Nah, 2018). 이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을 횡수, 규모, 이질성(heterogeneity)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3 변수들을 2개씩 곱한 뒤 제공근을 구해서 더한 값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한 변수는 대화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고려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성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통합된 정치 토론은 뉴스 매체 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시민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선행 연구들, 즉 (1) 캐츠 등이 제시한 ‘언론-대화-의견-참여’ 모형의 이론적 지향, (2) 속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이념적 전망, 그리고 (3)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 등 시민 간 대화의 선행 조건과 후속 결과를 탐구해 온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합의하는 바에 주목한다. 일단 이들은 모두 시민 간 대화가 민주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특별히 (1)과 (3)의 관점에서는 뉴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뉴스에 대한 반응의 일환으로 시민 간 대화가 촉발하는 데 주목하며, (2)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토론의 규칙이 설정이 되고 내용적으로 충실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시민 간 대화가 의견의 형성, 학습, 정치적 참여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전망을 따라서 시민 간 대화가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이론적 전망을 놓치지 않되,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시민 간 대화가 발생하는지 탐구하려 한다.

2) 언론에 대한 공정성 평가

한국인은 대체로 뉴스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그래서 그런지 언론을 믿지 못한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7 세계태도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조사대상국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국 응답자 1,010명 중 72%가 언론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응답했다. 뉴스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믿는 시민들이 그런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을 신뢰할 리 없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뉴스 신뢰도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로이터 연구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을 신뢰한다고 말한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25%에 그쳐, 조사대상국 37개국 중에 최하위였다.

뉴스 내용이 불공정하고 따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그런 뉴스를 이용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 전통적 언론매체 이용, 특히 신문의 구독율과 열독율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웅과 최영재(2005)는 한국 신문의 위기의 본질이 구독과 열독의 감소에 있다고 보고, 신문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공정성 위기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조사연구 자료를 이용해서 신문 보

도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결국 신문을 적게 읽고, 대신 인터넷 뉴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공정성 인식이 대안적 뉴스 채널에 대한 주목과 추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뉴스에 대한 내용평가가 시민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대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관련성은 상호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주류 언론의 보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불만을 느끼는 개인들은 대안적 정보채널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민적 대화에 다다를 수 있다. 인터넷 공동체, 교류매체, 전언매체 등 인터넷 공간에서 대안적 정보를 추구하고,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토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에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많이 접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뉴스매체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동료 시민의 의견을 접하는 가운데 전통적 뉴스매체가 제공하는 뉴스의 내용은 뉴스매체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 대한 내용 평가가 부가적 정보 추구나 대화 참여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의 관점에 따른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적대적 매체 지각이란 한 사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개인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 편향돼 있다고 인식하는 현상이다(오택섭·박성희, 2005; 이종혁, 2015; Gunther, Miller, & Liebhart, 2009; Reid, 2012). 이런 지각적 편향은 언론 보도가 편향돼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실제 편향된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현상은 '상대적인 적대적 매체 지각(relative hostile media perception)'이라 불리며, 이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있다(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대적 매체 지각을 갖는 시민은 공적 사안에 대한 대화나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컨대, 로하스(Rojas, 2010)는 언론매체의 지배적인 메시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닌 컬럼비아 시민들이 매체의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토론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었음을 보고했다. 츠파티와 코헨(Tsfati & Cohen, 2005)의 연구에서는 가자 지구(the Gaza strip) 유대인들이 주류 언론을 적대적으로 지각하고 언론 전반을 불신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황과 동료들(Hwang, Pan, & Sun, 2008)은 적대적 매체 지각이 매체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대화적 참여행위로 연결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한국 현실을 고려해서 언론매체 이용과 대화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는 주류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아닌 불신이 시민적 대화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이 언

론매체를 접할 때 공정성을 문제 삼고 불신하면서, 대안적 정보 채널과 대안적 해석을 얻기 위해 시민 간 대화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언론에 대한 불공정성 인식과 불신으로 인해, 시민들이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 비해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가 더욱 비판적이고, 정교화되어 있고,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동료 시민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보환경을 재구성하고 대안적 해석의 준거를 갖춘 시민들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검토해서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추론은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와 대화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것을 암시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시민적 대화가 일어나는 영역은 면대면 공간이라기보다 인터넷 공간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고 그에 대해 다른 시민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 공동체와 교류매체(social media) 등에서 대안적 정보와 해석을 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뉴스매체 특성에 따라서 시민들의 매체 이용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문과 뉴스 잡지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반면, 방송은 위안과 오락을 제공하고, 인터넷은 교류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식의 설명이 있다(김춘식, 2012; 박종민, 2003; 심미선·김은미·오하영, 2013; 이준웅·김은미·심미선, 2006). 시민적 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매체적 특성에 따른 정보 활용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각 매체에서 접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후속적인 매체 이용은 물론 시민 간 대화를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심스러운 뉴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을 한다든지, 논란이 되는 뉴스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공동체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교류매체에서 지인이 공유하거나 참조한 뉴스를 새롭게 찾아보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덧붙여 인터넷 공간에 뉴스에서 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직접 자신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정서적 반응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는 인터넷 대화를 중심으로 언론매체 이용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화가 지식습득과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2017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검토하려 한다. 특히 개별 언론매체별 이용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가 증가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특별히 인터넷 대화를 읽기와 쓰기로 구분해서 언론매체 이용이 대화의 두 구성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려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 대화의 읽기와 쓰기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터넷 토론에서 읽기는 쓰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이

루어지는 행위다.

인터넷 읽기와 쓰기는 면대면 대화와 달리 비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쓰기는 읽기에 비해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글을 공개한 이후에 그에 대한 사후통제가 어려운 부담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각오하고 글을 올리는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블랑차드와 마르쿠스(Blanchard & Markus, 2004)는 인터넷 대화를 의견게시(posting)와 숨어 읽기(lurking)로 나누고, 각각 능동적 행위와 수동적 행위로 분류했다. 나은경, 이강형과 김현석(2009)도 인터넷 토론에서 읽기와 쓰기는 다른 효과를 유발하므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최근 조, 아메드, 금, 최, 그리고 리(Cho, Ahmed, Keum, Choi, & Lee, 2018)은 설문조사와 온라인 포럼 참여자 분석을 통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행위가 기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파적 의견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우리는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이용시간과 별도로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경우에,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질문도 설정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대화를 읽기와 쓰기로 구분해서 각 행위에 대한 상관성을 탐색하기로 했다.

연구질문 1: 뉴스매체 별 이용시간은 인터넷 대화의 읽기와 쓰기, 그리고 면대면 대화와 각각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연구질문 2: 개인이 이용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 대화의 읽기와 쓰기, 그리고 면대면 대화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3) 인터넷 대화의 시민성 활성화 효과

이 연구는 시민들의 대화 중에서도 인터넷 공동체, 교류매체, 전언매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터넷 대화'에 주목한다. 대화의 시민성 활성화 효과를 탐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면대면 대화, 그것도 직장이나 동네 등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대화를 탐구해 왔다. 친구 또는 지인들 간에 형성된 대인적 연결망의 속성 또는 맥락과 관련한 변수들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이견 노출로 인한 효과'가 이런 종류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친구 또는 지인들 간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접할 기회는 적고 (적어도 '인터넷 대화에서 이견을 접할 기회보다는 적고, Gentzkow & Shapiro, 2011), 따라서 면대면 대화에서 이견 노출로 인한 효과는 맥락에 따라 과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면대면 대화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들을 보면, (가) 다른 의견을 지닌 상대와 가진 대화 경험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거쳐서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관용으로 연결되지만, 참여의지를 오히려 약화한다는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고(Mutz, 2002a, 2002b), (나) 이견에 대한 노출은 그렇지 않지만, 대화량은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고(Rojas, 2008), 심지어 (다) 이견에 대한 노출은 참여적 성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Torcal & Maldonado, 2014), 대화의 숙의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는 반대로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노성중·민영, 2009), (라) 대화량은 물론 이견에 대한 노출도 정치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Ikeda & Boase, 2011). 문제는 이 모든 결과들이 각자 경험적으로 그럴듯한 발견이며, 이론적으로 각자 해명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면대면 대화의 맥락 의존적 특성에 근거한 일종의 ‘조건적 효과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견에 대한 노출 또는 대화 환경의 이질성과 같은 조건 변수들뿐만 아니라, 대화의 형식성(일상적 대화 대 공식적 토론), 대화의 주요 주제(정치적 대화 대 오락적 대화)와 같은 변수들에 따라 효과의 방향은 물론 효과 발생 여부도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대화는 정보적이며 동시에 교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면대면 대화와 유사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 다층적으로 복수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매체환경의 특징 중 하나로 ‘가시성 효과(the visibility effect)’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준웅, 2009). 이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3자적 관찰을 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집합적 행위를 관찰할 수 있으며, (다) 타인들도 자기와 같은 관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인식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소통의 효능감(communication efficacy)을 갖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화의 조건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역시 대화의 양이 일단 중요하다(Ikeda & Boase, 2011).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어갈수록 인터넷에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인식이 후속적 효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토론 공간에서 타인의 글을 읽을수록 관용과 정치참여 의지가 증가하고,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김은미·이준웅, 2006). 또한 토론 공간에서 글을 자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길게 고품질의 글을 쓸 때 효능감이 증가했다(이준웅·김은미, 2006).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인터넷 토론이 학습과 참여에 대해서도 어떤 시민성 활성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논의했지만, 시민성 활성화 효과란 시민들이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인터넷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구하고, 의견을 참조하고,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참여할 의지를 갖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다른 시민과 토론을 통해 정치과정에 더욱 밀접하게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 행위가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공공포럼과 같은 집단 토론에 참여한 후 정치 지식이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고(Luskin, Fishkin, & Jowell, 2002), 대규모로 수행된 숙의형 여론조사(a deliberative poll)에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치 지식의 향상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Iyengar, Luskin, & Fishkin, 2003). 국내에서 김현주(1999)는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 관련 정보를 뉴스 매체로부터 주로 얻지만, 후보 인성 등 개인적 정보는 대인적 소통에서 얻는다고 보고했다. 대화와 토론이 적어도 후보의 개인적 정보에 대한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지식 향상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분화시키며 비판적 평가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나은경 등, 2009). 대화와 토론이 개인의 지식 향상과 비판적 의견 형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토론에서는 더욱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적 사안에 대한 학습이 많아질 뿐 아니라, 다른 의견에 대한 노출을 통해 비판적 의견 형성이 용이해진다. 실제로 나은경 등(2009)은 대통령 선거 시기 유권자가 인터넷 댓글을 많이 읽을수록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이 향상됨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송현주 등(2006)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읽을수록 자신의 본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에 대해 더 많은 근거를 가지며 논변 구성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인터넷 토론은 지식 향상이나 비판적 의견 형성 이외에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참여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민영·주익현, 2007; Bimber, 1998; Weber & Bergman, 2001). 인터넷 토론은 정치 관심을 향상시키고, 정치 신뢰와 참여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반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블랜드와 히블리(Eveland & Hively, 2009)는 토론을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정치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토론의 5차원이란 토론 횟수, 상대 수(network size), 동의 의견 및 반대 의견과 토론 횟수, 토론 다양성 등을 뜻한다. 이 중 토론 횟수, 상대 수, 동의 의견과 토론은 정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른 의견과 토론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토론 다양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정치 사안에 대한 토론이 대체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과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확정짓는 데에 불편을 겪어 정치 참여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우리는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가 지식습득과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앞서 논의한 캐츠 등(Kim, Wyatt, & Katz, 1999; Wyatt, Kim, & Katz, 2000)이 경험적으로 검증한 ‘언론-대화’ 간 관계와 더불어 맥클라우드와 샤, 그리고 그의 동료들(McLeod et al., 1999; Shah et al., 2005; Shah et al., 2007; Sotirovic & McLeod, 2001)이 반복해서 확인한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의 뒷단의 효과과정은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서 일종의 이론적 틀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마찬가지로 시민 간 대화가 지식습득과 참여의지에 선행하는 설명변수로 기능한다는 주장도 이미 유관한 이론적 논의가 있으며(Dahl, 1989; Dahlgren, 2000; Delli-Carpini & Keeter, 1996; Huckfeldt & Spargue, 1995), 또한 경험적으로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도 존재한다(Delli-Carpini, Cook, & Jacobs, 2004; Ikeda & Boase, 2011; Rojas, 2008;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따라서 선행 논의와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일종의 이론적 틀로 삼을 수 있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효과과정을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가설1: 개인이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 사회, 시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지식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2: 개인이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사회적 참여의지가 증가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자료의 특성

이 연구는 한국신문협회가 창립 6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공개하고 <신문이용의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사용한 자료를 재활용했다. 이 자료는 조사기관 엠브레인이 2017년 5월이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1,099명을 조사하고, 선거가 끝난 6월 중에 다시 1,201명을 조사해서 얻은 것으로서,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는 791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응답자 사전지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7년 6월 조사자료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글에서 지칭하는 변수들은 모두 사후조사에 속하며 응답자 수는 1,201명이다. <표 1>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11점 척도로 측정된 정치이념을 제시한다. 사후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연령의 평균

은 45세, 교육수준은 대체 이상, 가구소득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정도, 그리고 보수주의로 측정된 이념성향의 평균은 중간점인 5점에서 약간 보수 쪽으로 기운 수준($M = 6.02$)을 기록했다.

표 1. 2017년 한국신문협회 조사자료의 특성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전) ($n_1 = 1,099$)		2017년 6월 (대통령선거 후) ($n_2 = 1,201$)		연속참여 ($n_1 \sim n_2 = 79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45.12	13.43	44.86	13.48	46.10	13.22
교육수준	7.39	1.36	7.41	1.33	7.44	1.31
가구소득	5.11	2.33	5.19	2.33	5.17	2.29
정치적 보수주의	6.15	1.90	6.02	1.85	6.19	1.61
성별	남성 545명(49.6%)		남성 609명(50.7%)		남성 407명(51.5%)	
	여성 554명(50.4%)		여성 592명(49.3%)		여성 384명(48.6%)	

교육: 초졸에서 대학원 이상까지 9단계. 7=대재, 8=대졸.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상 까지 11단계. 5=400~500만원, 6=500~600만원.

정치성향: 0~10점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성향)

2) 변수의 측정

매체이용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하루 이용량에 대한 응답을 분단위로 환산해서 구했다. 신문 이용시간은 사후조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 평균 17.82분, 지상파 채널은 86.07분, 케이블 채널은 76.71분이었으며, 포털 이용시간은 84.22분, 언론사 인터넷사이트는 14.84분, 교류매체(SNS) 43.05분, 인터넷 공동체 사이트 이용시간은 32.28분이었다. 동영상 사이트 이용시간은 27.25분이고 팟캐스트 이용시간도 8.20분에 달했다(<표 2> 참조).

표 2. 매체별 뉴스 이용

	2017년 5월 조사 (대통령선거 전) ($n_1 = 1,099$)			2017년 6월 조사 (대통령선거 후) ($n_2 = 1,201$)		
	평균(분)	표준편차	유효응답	평균(분)	표준편차	유효응답
신문	16.91	27.97	1,082	17.82	28.09	1,181
지상파 채널	92.50	77.08	1,062	86.07	72.49	1,175
케이블 채널	85.57	71.43	1,061	76.71	66.96	1,173
포털 사이트	86.30	77.82	1,057	84.22	71.41	1,175
언론사 사이트	14.95	30.79	1,080	14.84	26.88	1,178
라디오	22.88	41.28	1,071	21.86	38.08	1,168
잡지	3.90	12.65	1,085	4.67	13.28	1,179
교류매체	44.80	61.36	1,062	43.05	52.67	1,166
인터넷 공동체	29.69	44.41	1,061	32.28	46.64	1,175
동영상 사이트	27.83	43.31	1,069	27.25	36.93	1,176
팟캐스트	6.88	20.55	1,080	8.20	21.45	1,182

주) 매체이용시간 이상치 기준($> 3SD$)을 넘은 응답자를 제외한 평균값

뉴스 경로의 선택 총 44개의 '뉴스경로' 중에 '지난 일주일 많이 이용한 5개의 뉴스'를 선택하도록 해서 측정했다. 뉴스경로란 'KBS 계열 텔레비전 뉴스', 'KBS 계열 라디오 뉴스', 'MBC 계열 텔레비전 뉴스', 'TV조선' 등 방송뉴스경로, '조선일보 계열 신문뉴스', '한겨레', '동아일보 계열 신문뉴스' 등과 같이 신문뉴스경로, 그리고 'KBS 계열 인터넷 뉴스', '조선일보 계열 인터넷 뉴스' 등 인터넷 뉴스경로를 포함한다. 마지막 45번째 '기타 뉴스채널' 선택도 제공해서 필요한 경우 응답자가 '보기'에 없는 뉴스매체 이름을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응답자의 65.4%가 5개의 뉴스경로를 선택했으며, 15.4%는 4개 경로, 19.2%는 3개 경로를 선택했다.

뉴스 공정성 평가 응답자가 선택한 뉴스경로에 대해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한다',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소수자와 약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 3개의 문항을 사용해서 측정했다. 응답자가 7점 리커트 척도에 답한 값을 평균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3문항 간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91이고 변수의 평균값은 64.74($SD = 16.14$)였다.

보수적 뉴스이용 이 변수는 뉴스이용의 이념적 경향성을 측정한 것인데, 앞서 측정한 뉴스 경로 선택문항을 이용해서 구성했다. 응답자가 5개의 뉴스경로 모두 보수성향의 뉴스를 선택하면 값이 커지고, 반대로 모두 진보성향의 뉴스경로를 선택하면 값이 작아지도록 측정했다. 예컨대, '조선일보 계열 신문뉴스', 'TV조선', '매일경제 계열 신문' 등은 보수성향 뉴스경로로 코딩해서 3의 값을 부여하고, 'JTBC', '한겨레 신문 계열뉴스', '경향신문 인터넷 뉴스' 등은 진보성향 뉴스경로로 코딩해서 1의 값을 부여했다. 'YTN 계열 텔레비전 뉴스'나 '서울신문 계열 신문' 등은 중도성향으로 분류한 후, 2의 값을 부여했다. 이렇게 코딩함으로써 응답자가 선택한 뉴스경로에 따라 최솟값 1부터 최댓값 3까지 범위를 갖는 뉴스이용의 이념적 성향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변수의 평균값은 1.91($SD = 0.33$, 최댓값 = 3.00)였다. 이는 응답자 평균은 중간점이 2점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경미하게 진보적인 뉴스이용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개인의 보수주의와 보수적 뉴스이용 간 상관관계는 .2($p < .001$, $n = 1,201$)였다. 보수적인 응답자가 역시 보수적 뉴스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이용의 이념적 다양성 이 변수는 뉴스경로 선택문항을 이용해 구성한 것이다. 응답자가 선택한 5개의 뉴스경로 중에서 보수, 진보, 중도 뉴스경로가 고르게 등장하면 값이 커지고, 모두 보수적이거나 또는 진보적인 뉴스경로를 선택하면 값이 작아지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었다. 보수, 진보, 보수 등 3개의 범주에 속하는 뉴스경로의 비율을 먼저 계산한 후, 이를 세논의 엔트로피 공식($S = - \sum p_i \cdot \log p_i$)에 대입해서 측정했다. 범주 간 비율이 고르면 엔트로피 값이 낮아지고, 한쪽으로 쏠리면 값이 높아진다. 뉴스이용의 이념적 다양성의 평균값은 0.79(SD

= 0.23, 최댓값 = 1.07)였다. 뉴스이용의 이념적 다양성은 응답자의 정치적 보수주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 = .02, p = .59, n = 1,201$). 즉 뉴스매체 이용의 이념적 다양성은 정치이념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읽기 인터넷 대화를 ‘읽기’와 ‘쓰기’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인터넷 읽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분야 사안에 대해 ‘카톡,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물어서 9단계 행위빈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한 달에 1회 미만 한다’는 응답은 0점을 주고 ‘하루 5회 이상 한다’는 응답은 8점을 주는 식으로 변환해서 총 4개 문항의 평균값을 구했다. 4 문항의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91고 변수의 평균값은 2.87 ($SD = 2.10$), 중간값은 2.75였다. 1주일에 1회 미만 정도로 동료 시민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중간쯤에 해당한다는 결과다.

인터넷 쓰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분야 사안에 대해 ‘카톡,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얼마나 자주 글을 올리는지’와 ‘얼마나 자주 자료를 공유하는지’라는 2개 문항을 사용해서 응답자의 행위빈도를 9단계(0~8점 부여)로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했다. 인터넷 읽기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1회 미만 한다’는 응답은 0점을 주고 ‘하루 5회 이상 한다’는 응답은 8점을 주는 식으로 변환해서 총 4개 분야에 각 2문항 씩, 총 8개 문항의 평균을 구했다. 인터넷 쓰기 8문항의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92였고, 평균값은 1.01($SD = 1.53$), 중간값은 0.25, 왜도는 1.77이었다.

표 3. 정치적 인터넷 대화: 읽기에 따른 쓰기의 비율

	1주 1회 미만 쓰기	1주 1회 이상 쓰기
1주 1회 미만 읽기	448 (96.8%)	16 (3.2%)
1주 1회 이상 읽기	472 (67.7%)	225 (32.3%)

$n^2 = 1,201; \chi^2 (d.f) = 154.5 (1); p < .001$

인터넷 대화에서 읽기와 쓰기 간의 상관관계는 .43($p < .001$)였다. 즉 인터넷에서 읽기와 쓰기는 상관성을 갖는다. 이 상관관계는 ‘1주에 1번 미만 읽는다’는 응답 중에 ‘1주에 1번 미만 쓴다’는 응답이 많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인터넷 대화의 빈도를 기준으로 응답자를 4집단으로 구분한 결과인데, 인터넷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1주에 1회도 읽지 않는 응답자 중 96.8%가 1주 1회 미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인터넷에서 쓰는 경우란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른 시민의 글을 읽어야 조금이라도 쓴다는 것이다.

면대면 대화 인터넷 대화와 별도로 대인간 면대면 대화도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자주 (가) 의견을 말하고, (나) 다른 사람의 의

견을 듣고, (다) 3자에게 의견을 전하는지 질문해서 마찬가지로 9단계 행위빈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4분야에 3문항씩 모두 12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12문항의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96이고 평균값은 1.71($SD = 1.61$)였다.

지식 지식은 정치, 시사,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최신 지식’을 4지선다 문항으로 질문해서 정답을 채점하는 식으로 측정했다. 예를 들어, “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의 하나로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을 사용한 프로그래머가 창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지난 19대 대선기간에 바른정당 국회의원 12명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중 그 12명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이용했다. 2017년 5월 사전조사에서는 20문항을 이용해서 질문했고, 6월 사후조사는 다른 내용으로 21문항을 새롭게 만들어서 질문했다. 사전지식의 평균은 47.14($SD = 18.87$), 사후지식의 평균은 60.27($SD = 20.99$)였는데, 이 경우 평균값의 사전-사후 차이($M = 12.30$, $SD = 15.81$)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한 학습효과에 사후지식을 측정한 문항들의 난이도 효과가 더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분석에서 문항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지식변수를 재구성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집단 수준의 평균값의 상승을 통제한 분석을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

참여 사회집단 참여와 정치 참여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먼저 사회집단 참여는 정치시사모임, 학습정보모임, 종교모임, 친목모임, 봉사활동 모임, 지역 모임 등 11개 유형의 사회활동에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했는지 여부를 물어서 측정했다. 참여집단의 평균적인 수는 3.34($SD = 2.27$)개였다. 정치적 참여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집회참여, 서명, 기부, 정치단체 활동 등 7개의 정치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지 질문해서, ‘한 달에 1회 미만’은 0점을 주고, ‘하루에 5회 이상’은 8점을 주는 식으로 코딩했다. 총 9등급 빈도를 평균해서 정치참여 정도를 측정했는데, 7문항의 내적일치도 신뢰도는 .96이었다. 정치참여의 평균값은 0.66($SD = 1.37$, 최댓값 = 9)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평균적인 정치참여의 행위빈도가 ‘한 달에 1회 미만’에서 ‘한 달에 1에서 2회’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 결과

1) 매체 이용과 인터넷 및 면대면 대화 (연구질문 1)

매체 이용이 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읽기, 인터넷 쓰기, 그리고 면대면 대화를 종속변수로 놓고 개인차변수들, 매체이용시간, 그리고 뉴스이용을 독립변수로 삼아 다중회

귀분석을 수행했다(〈표 4〉 참조). 첫째 열에 제시한 인터넷 읽기부터 보면, 언론사 사이트와 인터넷 공동체 이용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에서 동료 시민의 글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적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리고 동시에 보수나 중도적 뉴스도 찾아보는 방식으로 뉴스를 이용할수록 다른 시민의 글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자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고 진보적인 이념을 가질수록 인터넷에서 많이 읽는다는 개인차 효과를 통제한 후 얻은 결과였다.

인터넷 대화 중 쓰기는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했는데, 이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신문, 언론사사이트, 잡지, 교류매체(SNS), 팟캐스트 등 매체를 이용하면 쓰기가 증가했다. 반면 인터넷 포털 이용은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보수적 뉴스이용과 뉴스 이용 이념 다양성은 인터넷 쓰기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뉴스이용이 인터넷 읽기, 인터넷 쓰기, 면대면 대화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읽기			인터넷 쓰기			면대면 대화		
	B	β	S.E.	B	β	S.E.	B	β	S.E.
절편	2.584		0.598***	1.090		0.400**	1.669		0.436***
개인차변수									
여성	0.238	0.06	0.126+	-0.220	-0.08	0.084**	-0.045	-0.02	0.092
연령	-0.004	-0.03	0.005	-0.008	-0.07	0.004*	-0.016	-0.13	0.004***
교육수준	0.087	0.06	0.049+	-0.044	-0.04	0.033	0.032	0.03	0.036
가구소득	0.087	0.09	0.029**	0.039	0.06	0.019*	0.097	0.14	0.021***
보수주의	-0.129	-0.11	0.038***	0.014	0.02	0.025	-0.049	-0.05	0.028+
매체 이용시간									
신문	0.002	0.02	0.003	0.005	0.10	0.002**	0.005	0.08	0.002*
지상파	-0.002	-0.07	0.001*	0.000	0.00	0.001	0.000	0.00	0.001
케이블	0.002	0.05	0.001	0.001	0.04	0.001	0.001	0.05	0.001
인터넷포털	0.000	0.00	0.001	-0.002	-0.08	0.001*	-0.001	-0.02	0.001
언론사사이트	0.009	0.10	0.003**	0.008	0.12	0.002***	0.007	0.11	0.002***
라디오	0.000	0.00	0.002	0.002	0.04	0.001	0.002	0.05	0.001
잡지	0.010	0.06	0.006+	0.019	0.17	0.004***	0.013	0.11	0.004**
교류매체	0.002	0.06	0.002	0.004	0.14	0.001***	0.002	0.08	0.001*
인터넷공동체	0.006	0.13	0.002***	0.002	0.06	0.001+	0.003	0.08	0.001*
인터넷동영상	0.003	0.05	0.002	0.000	0.01	0.001	0.001	0.03	0.002
팟캐스트	0.003	0.02	0.004	0.005	0.07	0.002*	0.001	0.02	0.003
뉴스이용									
보수뉴스이용	-0.562	-0.09	0.198**	-0.060	-0.01	0.133	-0.286	-0.06	0.145*
이용다양성	0.705	0.08	0.272**	-0.080	-0.01	0.182	0.340	0.05	0.199+
수정된 R ²	.118			.187			.158		
F(d.f.)	8.53 (18; 1000) ***			14.01 (18;1000) ***			11.65 (18;1000) ***		

+ < .10, *p < .05, **p < .01, *** p < .001
N = 1,201

면대면 대화는 인터넷 읽기와 유사한 효과의 양상을 보였다. 나이가 적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면대면 대화가 많았는데, 이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신문, 언론사 사이트, 잡지, 교류 매체, 인터넷 공동체 이용이 많을수록 동료 시민과 면대면 대화빈도가 많아졌다. 덧붙여 진보적 인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가 면대면 대화도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 뉴스 공정성 평가와 인터넷 및 면대면 대화 (연구질문 2)

인터넷 읽기, 인터넷 쓰기, 그리고 면대면 대화와 뉴스 공정성 평가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했다. 뉴스공정성 평가는 1,201명의 응답자가 45개 뉴스매체 중에서 각자 최대 5개까지 선택해서 평가한 것이므로 뉴스공정성 평가점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할 때, 개인차 랜덤변량을 분석모형에 포함해 통제해서 분석할 수 있다. 뉴스공정성 평가점수를 이용해서 개인수준 급내상관계수(ICC)를 구해보면 .53였다. 공정성 평가점수 변량 중 개인차로 인한 변량이 53%라는 것이다. 개인차 수준의 랜덤변량을 고려해서 인터넷 및 면대면 대화와 채널에 대한 공정성 평가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수준 분석모형을 <수식 1>과 같이 설정했다.

$$y_{ij} = \gamma_{00} + \gamma_{01}Z_j + u_{0j} + e_{ij} \quad e_{ij} \sim N.I.D(0, \sigma^2)$$

$$u_{0j} = N.I.D(0, \sigma^2 u_{0j}) \quad \text{— 〈수식 1〉}$$

뉴스채널에 대한 공정성평가(y_{ij})는 전체 평균값(b_o)과 오차항(e_{ij})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오차항은 정상분포하며 평균은 0이라 가정한다. 수식에서 첨자 i 는 뉴스채널, j 는 이용자 개인을 지시한다. 뉴스채널 공정성 평가의 평균(b_o)을 절편(γ_{00})과 개인수준의 랜덤절편(u_{0j})으로 구분하고, 다시 개인수준의 독립변수(Z_j)에 따른 효과(γ_{01})를 모형에 더해서 표현하면 <수식 1>이 된다.

<표 5>의 첫 번째 열의 모형1이 제시한 개인차변수와 뉴스 공정성 평가 간의 관계를 보면, 개인차 랜덤변량을 고려한 후에도 나이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 개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뉴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열에 제시한 모형2는 매체이용시간과 공정성평가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지상파 채널, 케이블 채널, 언론사 사이트, 잡지, 교류매체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는 뉴스 평가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공동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는 자신이 선택한 뉴스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열에 제시한 모형3은 개인차 랜덤변량, 개인차 통제변수, 그리고 매체이용 변수 등

의 효과를 모두 통제 한 후에 시민 간 대화와 공정성 평가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인터넷에서 동료 시민의 글을 많이 읽는 응답자는 자신이 선택한 뉴스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덧붙여 면대면 대화는 인터넷 읽기와 반대 방향의 효과를 제시한다. 다른 시민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신이 선택한 뉴스를 공정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표 5. 인터넷 읽기, 쓰기과 공유, 면대면 대화와 공정성 평가 간의 관계 (다수준분석)

	뉴스 공정성평가 (모형1)		뉴스 공정성평가 (모형2)		뉴스 공정성평가 (모형3)	
	B	S.E.	B	S.E.	B	S.E.
고정효과						
절편	64.675	0.354***	64.940	0.366***	65.934	0.365***
개인차변수						
여성	-0.519	0.711	0.110	0.736	0.180	0.741
연령	0.278	0.027***	0.194	0.030***	0.201	0.031***
교육수준	-0.260	0.284	-0.059	0.287	-0.056	0.288
가구소득	0.463	0.162**	0.381	0.171*	0.358	0.172*
보수주의	0.213	0.212	-0.359	0.219	-0.376	0.221+
매체 이용시간						
신문			0.022	0.015	0.021	0.015
자상파			0.012	0.006+	0.011	0.006+
케이بل			0.015	0.007**	0.020	0.007**
인터넷포털			-0.015	0.006*	-0.015	0.006*
언론사사이트			0.033	0.017+	0.034	0.018+
라디오			0.019	0.011+	0.018	0.011+
잡지			0.078	0.034*	0.079	0.034*
교류매체			0.023	0.009*	0.023	0.009**
인터넷공동체			-0.048	0.010***	-0.047	0.010***
인터넷동영상			0.005	0.012	0.006	0.012
팟캐스트			-0.026	0.021	-0.024	0.021
대화						
인터넷 읽기					-0.453	0.226*
인터넷 쓰기					-0.312	0.351
면대면 대화					0.752	0.368*
랜덤효과						
개인차 변량	123.25		104.48		104.17	
오차 변량	123.40		121.68		121.67	
AIC	44867.89		37954.75		37957.51	
BIC	44920.92		38077.56		38099.72	

+ < .10, *p < .05, **p < .01, *** p < .001

N = 1,201

3) 대화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하는 개인은 정치, 사회, 시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건변화모형(conditional change model)을 이용했다. 조건변화 모형은 <수식 2>와 같다.

$$y_1 - y_0 = \beta_0 - \beta_1 x + \beta_2 (y_0 - \bar{y}_0) + e \quad \text{—————} \langle \text{수식 2} \rangle$$

종속변수인 학습($y_1 - y_0$)은 사후지식 점수에서 사전지식 점수를 뺀 값, 즉 학습이다. 학습에 대해 중심화한(centered) 사전지식, 즉 사전지식 값의 평균으로부터의 차이($y_0 - E(y_0)$)를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와 더불어 회귀함으로써 응답자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는 사전지식 수준을 통제할 상태에서 지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로 측정한 지식 간에 발생하는 '평균으로 회귀현상(regression to the mean)'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¹⁾

표 6. 인터넷 읽기, 쓰기와 공유, 면대면 대화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조건변화모형)

	학습 (사후지식 - 사전지식)			학습 (사후지식 - 사전지식)		
	B	β	S.E.	B	β	S.E.
절편	3.792		4.990	0.089		4.931
사전지식(중심화)	-0.236	-0.26	0.035***	-0.282	-0.32	0.035***
개인차변수						
여성	-0.858	-0.03	1.210	-1.836	-0.06	1.200
연령	0.072	0.06	0.052	0.079	0.07	0.051
교육수준	2.068	0.17	0.482***	1.892	0.16	0.472***
가구소득	0.462	0.06	0.283	0.359	0.05	0.280
보수주의	-1.719	-0.18	0.383***	-1.443	-0.15	0.377***
매체 이용시간						
신문	0.006	0.01	0.024	0.008	0.01	0.023
자상파	-0.014	-0.06	0.011	-0.008	-0.03	0.010
케이블	0.004	0.02	0.011	0.007	0.02	0.011
인터넷포털	0.003	0.02	0.011	0.001	0.01	0.010
언론사사이트	0.061	0.08	0.030+	0.049	0.07	0.030
라디오	-0.034	-0.07	0.018+	-0.035	-0.08	0.018*
잡지	-0.129	-0.10	0.058*	-0.121	-0.09	0.057*
교류매체	-0.018	-0.05	0.015	-0.019	-0.06	0.015
인터넷공동체	-0.015	-0.04	0.017	-0.025	-0.06	0.017
인터넷동영상	0.018	0.04	0.020	0.010	0.02	0.020
팟캐스트	0.034	0.04	0.037	0.048	0.06	0.037
대화						
인터넷 읽기				1.361	0.18	0.371***
인터넷 쓰기				-2.197	-0.20	0.573***
면대면 대화				1.385	0.13	0.609*
수정된 R^2 (DR2)	.104			.145 (.041 ***)		
F(d.f.)	5.62 (17; 657) ***			6.72 (20; 654) ***		

+ < .10, *p < .05, **p < .01, *** p < .001
N = 791

1) 사후지식의 문항 중 일부의 난이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사전-사후 간 평균값의 상승을 통제한 분석도 별도로 수행했다. 문항별 난이도를 가중치로 삼아서 지식변수를 재구성해서 같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표 6>에 제시한 결과와 실제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6〉을 보면, 교육수준, 보수주의, 그리고 매체 이용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한다. 먼저 통제변수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질수록 학습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와 잡지 매체를 많이 이용할수록 학습이 저하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의 효과와 사전지식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후에,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는 지식의 증가에 도움을 주었지만, 인터넷 쓰기는 반대로 지식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만, 쓰기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발견은 해석이 쉽지 않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시기에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글쓰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전지식과 인터넷 글쓰기의 상관관계는 $-0.01(p > .05)$ 에 불과하기에 이 해석이 뒷받침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에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글을 쓰는 행위가 지식습득 시간이나 기회를 제한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4) 대화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

인터넷 대화와 면대면 대화를 많이 하는 개인의 정치사회적 참여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표 7〉 참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집단 참여활동이 많았고, 연령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집단 참여가 활발했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반대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참여했고, 나이가 적을수록 참여빈도가 높았다. 신문이용은 두 종류의 참여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류매체 이용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었는데 후자가 특별히 흥미롭다. 교류매체 서비스의 동원적 기능을 확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차변수와 매체이용을 통제한 후에, 인터넷 쓰기는 사회집단 참여와 정치적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 읽기는 정치적 참여에 오히려 부정적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읽기는 학습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효과를 보였던 것이다. 사후조사 지식수준도 정치적 참여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많이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통령 선거기간에 더 적게 정치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다.

표 7. 인터넷 읽기, 쓰기와 공유, 면대면 대화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집단 참여			점차적 참여		
	B	β	S.E.	B	β	S.E.
절편	-0.482		0.515	1.250		0.289***
개인차변수						
여성	0.335	0.08	0.124**	-0.203	-0.08	0.069**
연령	0.020	0.12	0.005***	-0.008	-0.08	0.003**
교육	0.061	0.04	0.048	0.010	0.01	0.027
가구소득	0.079	0.08	0.029**	-0.016	-0.03	0.016
보수주의	0.040	0.03	0.037	-0.011	-0.01	0.021
매체 이용시간						
신문	0.010	0.12	0.003***	0.004	0.08	0.001**
지상파	0.001	0.02	0.001	0.001	0.04	0.001
케이블	-0.001	-0.03	0.001	0.000	0.01	0.001
인터넷 포털	0.001	0.04	0.001	-0.001	-0.03	0.001
언론사 사이트	0.004	0.05	0.003	0.003	0.05	0.002+
라디오	0.003	0.05	0.002	0.001	0.03	0.001
잡지	0.010	0.06	0.006+	0.004	0.04	0.003
교류매체	0.007	0.14	0.001***	0.002	0.06	0.001**
인터넷 공동체	-0.001	-0.03	0.002	0.001	-0.03	0.001
인터넷 동영상	-0.006	-0.03	0.002	-0.001	-0.03	0.001
팟캐스트	-0.006	-0.05	0.003	0.002	0.03	0.002
대화						
인터넷 읽기	0.016	0.02	0.038	-0.043	-0.07	0.021*
인터넷 쓰기	0.368	0.24	0.059***	0.392	0.44	0.033***
면대면 대화	0.216	0.15	0.061**	0.032	0.04	0.034
사후조사 지식	0.005	0.05	0.003	-0.010	-0.17	0.002***
수정된 R ²	.284			.327		
F(d.f.)	21.14 (20; 998) ***			25.77 (20; 998) ***		

+ < .10, *p < .05, **p < .01, *** p < .001
N = 1,201

5. 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가 제시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변과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매체 이용은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보적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가 증가했고, 동시에 진보, 중도, 보수 등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뉴스를 이용할수록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가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인터넷 쓰기에서는 같은 종류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언론매체에 대한 평가와 대화 간에는 일부 부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응답자가 선택해서 읽은 뉴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인터넷 공동체, 교류매체, 전문매체 등에서 동료 시민의 글을 읽는 빈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터넷 매체 중에 포털 사이

트, 공동체 사이트,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선택한 뉴스에 대한 공정성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인터넷 읽기와 면대면 대화는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넷 글쓰기는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쓰기는 사회집단 참여와 더불어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적 참여활동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인터넷 읽기와 지식 수준은 정치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매체 이용, 매체 공정성 평가, 인터넷 및 면대면 대화, 학습, 참여 등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 논의를 할 수 있다. 먼저, 매체 이용은 대체로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대화는 참여에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결과는 가브리엘 타르드의 논의를 따른 케츠와 동료들의 ‘언론-대화-의견-행동’ 모형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Kim, Wyatt, & Katz, 1999; Wyatt, Kim, & Katz, 2000). 언론매체가 시민 간 대화를 촉발시키고, 대화가 의견 품질을 향상시키며 시민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결국 민주적 시민성이란 시민들이 언론으로부터 공적 사안에 대해 배우고, 시민 간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참여의지도 다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확인한 언론매체 이용, 대화, 참여의 관계는 미국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형(communication mediation model)’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McLeod et al., 1999; Shah et al., 2005; Shah et al., 2007; Sotirovic & McLeod, 2001). 이 모형을 인용한 후속 연구에서도 언론매체 이용이 시민의 면대면 대화와 인터넷 대화를 촉발하고, 이어서 정치사회적 참여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검증한 바 있는데(Rojas & Puig-i-Abril, 2009; Yamamoto & Nah, 2018),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효과과정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결과를 보면, 그러나 모든 언론매체 이용이 대화를 촉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신문, 언론사사이트, 잡지 등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이용은 대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동영상 등 오락적 내용을 함께 다루는 매체 이용은 시민 간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시민적 대화의 기회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이 결과는 또한 시민들의 매체이용 동기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정보 추구하고 환경 감시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언론매체는 시민적 대화에 도움을 주지만, 오락을 비롯한 다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다.

둘째, 우리는 뉴스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인터넷 읽기 간의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인터넷에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읽거나 보는 뉴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읽기와 매체에 대한 평가 간의 관계는 상관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자신이 보는 뉴스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동료 시민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뉴스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시민들은 해당 언론매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른 시민들의 반응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별도의 정보를 참조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과 동료들(Hwang, Pan, & Sun, 2008)에 따르면, 언론매체에 대한 적대적 지각을 가진 이들 중에는 해당 매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동료 시민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습득하면서, 언론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시민 간 대화와 언론매체 대한 부정적 평가가 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가 발견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인터넷 대화 중 읽기와 쓰기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쓰기는 학습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읽기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인터넷 읽기가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정치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인터넷 쓰기는 학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사회집단과 정치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과거 인터넷 읽기와 쓰기가 지식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예를 들어, 김은미와 이준웅(2006)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토론장 참여자들을 조사한 결과, 정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읽기를 활발하게 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지식과 인터넷 쓰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경 등(2009)도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을 조사해 댓글을 많이 읽는 경우에 정치 지식이 향상되는 것을 검증했다. 여기에서도 댓글 쓰기는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터넷 읽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 쓰기는 본래 가진 정보를 재구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읽기에서는 쓰기에 비해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를 새롭게 습득할 수 있다. 본래 대화는 뉴스 매체만큼 새로운 정보 제공의 원천으로 기능하지 않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뉴스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 Levy, 1986). 게다가 대화 중에 다른 의견이 나타나면 참여자의 인지적 활동이 자극되며, 반대편 정보와 의견을 새롭게 학습하는 계기로 발전한다(Levine & Russo, 1995; Gamson, 1992). 인터넷 읽기는 쓰기에 비해 다른 의견을 다양하게 접촉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읽기는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쓰기는 물리적으로 다른 의견 접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핑그리(Pingree, 2007)는 쓰기를 전과 후의 2단계로 나눠 심리적 변화 과정을 논의했다. 쓰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와 의견을 정합성 있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성찰 또는 개인 내 커뮤니케이션(intrapersonal communication)으로 인해 글쓴이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며 관련 근거를 뚜렷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쓰기 후에는 자신의 글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개된 자신의 글 내용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이 그것이다. 이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를 피하고픈 일반적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다. 또는 자신의 글을 읽은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압력을 받으며 글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결국 인터넷 쓰기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읽기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행위가 된다. 시민들은 인터넷 쓰기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의견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글에는 비판이 적으며 따라서 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반대 의견을 피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선스타인(Sunstein, 2006)은 ‘메아리 방(echo chamber)’에 비유해서, 인터넷에서 글 쓰는 이들이 자신의 의견과 유사한 의견들만 접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핑그리와 선스타인 등의 견해를 종합해서, 인터넷 읽기와 쓰기가 참여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인터넷 읽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래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들도 접하고 그 내용을 기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머츠(Mutz, 2002a, 2002b)에 의하면, 이와 같이 복잡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은 결국 정치적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일종의 내적인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정치적 참여를 유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 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쓰기를 통해 자신의 본래 의견을 더욱 명확하고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참여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를 수행해서 이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한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언론매체 이용과 인터넷 대화의 관련성, 그리고 인터넷 대화가 초래하는 학습과 참여에 대한 효과인데, 각 과정에 대한 정밀한 효과 기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읽기가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과연 이런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설계를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또한 언론매체의 이용에 따라 인터넷 대화에 대한 효과의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과연 어떤 매체의 속성이 특정 방향의 효과를 산출하는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결과는 대화와 참여의지 간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제시할 뿐 그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최근 캐츠(Katz, 2014)는 인터넷 행동주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보급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민혁명이 가능해졌다'는 종류의 낙관론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특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든 새로운 인터넷 매체든 시민들이 단순히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대중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 경고했다. 대규모 혁명은 물론 작은 시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라도, 행위에 나서는 시민들은 (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는 다른 이들이 많다는 인식과 더불어 (나) 자신의 처지에서 행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캐츠의 주의 깊은 논평에 동의하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대화가 참여를 유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후속 연구에서 시민 간 대화가 과연 어떻게 집합적 인식과 행위동기를 낳는지, 그리고 집합적 인식과 행위동기는 또한 어떤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는지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 집단 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16-143.
- 김은미·이준용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4.
- 김춘식 (2012). 전통미디어와 대화를 통한 정치정보 습득이 정치 신뢰와 미디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유권자의 인터넷 이용 동기와 인터넷 정치정보노출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389-413.
- 김현주 (1999).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 12호, 45-74.
- 나은경·이강형·김현석 (2009).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과 사회신뢰, 정치신뢰, 언론신뢰, 그리고 정치지식.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09-132.
- 노성중·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173-197.
- 민영·노성중 (2013). 가치, 참여, 인터넷 이용 : 386세대와 정보화세대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5-32.
- 민영·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90-217.
- 박종민 (2003). 휴대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의 미디어 속성 차이와 이용 동기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221-249.
- 송현주·신승민·박승관 (2006).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견 읽기와 논변구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160-183.
- 심미선·김은미·오하영 (2013).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및 비이용자의 성향동기와 미디어 이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7권 6호, 75-114.
- 오택섭·박성희 (2005). 적대적 매체지각: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35-166.
- 이중혁 (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호적, 중도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7-36.
- 이준용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2.
- 이준용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5-32.

- 이준웅 · 김은미 (2006). 인터넷 정치 토론과 정치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94-424.
- 이준웅 · 김은미 · 심미선 (2006). 다매체 이용자의 성향적 동기: 다매체 환경에서 이용과 충족 이론의 확장. <한국언론학보>, 50권 1호, 252-284.
- 이준웅 · 최영재 (2005).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하중원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권, 369-405.
-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16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3호, 421-456.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imber, B.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1), 133-160.

Blanchard, A. L., & Markus, M. L. (2004). The experienced sense of a virtual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ACM SIGMIS Database: the DATABASE for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 35(1), 64-79.

Cho, J., Ahmed, S., Keum, H., Choi, Y. J., & Lee, J. H. (2018). Influencing myself: Self-reinforcement through online political exp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45(1), 83-111.

Dahl, R. A.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ahlgren, P. (2000). The Internet and the democratization of civic culture. *Political Communication*, 17(4), 335-340.

Delli-Carpini, M. X., Cook, F. L., & Jacobs, L. R. (2004). Public deliberation, discursive participation and citizen engagement: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 315-344.

Delli-Carpini, M. X., & Keeter, S.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Eveland Jr, W. P., & Hively, M. H. (2009). Political discussion frequency, network size,

- and “heterogeneity” of discussion as predictors of political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9(2), 205-224.
- Farrar, C., Fishkin, J. S., Green, D. P., List, C., Luskin, R. C., & Paluck, E. L. (2010). Disaggregating deliberation's effects: An experiment within a deliberative pol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333-347.
- Fishkin, J. S. (1999). Toward a deliberative democracy: Experimenting with an ideal. In S. Elkin & K. E. Soltan (Eds.), *Citizen compete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pp. 279-90).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Fishkin, J. S. (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stil, J., & Dillard, J. P. (1999). Increasing political sophistication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1), 3-23.
- Gentzkow, M., & Shapiro, J. M. (2011). Ideological segregation online and offlin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4), 1799-1839.
- Grönlund, K., Setälä, M., & Herne, K. (2010). Deliberation and civic virtue: lessons from a citizen deliberation experi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1), 95-117.
- Gunther, A. C., Miller, N., & Liebhart, J. L. (2009).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a test of the hostile media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36(6), 747-764.
- Gunther, A. C., Christen, C. T., Liebhart, J. L., & Chih-Yun Chia, S. (2001). Congenial public, contrary press, and biased estimates of the climate of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5(3), 295-320.
- Huckfeldt, R., & Sprague, J. (1995). *Citizens, politics, and social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fluence in an election campaig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H., Pan, Z., & Sun, Y. (2008). Influence of hostile media perception on willingness to engage in discursive activities: An examination of mediating role of media indignation. *Media Psychology*, 11(1), 76-97.
- Ikeda, K., & Boase, J. (2011). Multiple discussion networks and their consequenc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8(5), 660-683.

- Iyengar, S., Luskin, R. C., & Fishkin, J. S. (2003, August). Facilitating informed public opinion: evidence from face-to-face and online deliberative polls.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 Katz, E. (1992). On parenting a paradigm: Gabriel Tarde's agenda for opinion and communi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4, 80-85.
- Katz, E. (2006). Rediscovering Gabriel Tarde. *Political Communication*, 23(3), 263-270.
- Katz, E. (2014). Back to the street: When media and opinion leave home.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7, 454-463.
- Kim, J., Wyatt, R. O.,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4), 361-385.
- Kymlicka, W., & Norman, W. (1994).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104(2), 352-381.
- Levine, J. M., & Russo, E. (1995). Impact of anticipated interaction on information acquisition. *Social Cognition*, 13(3), 293-317.
- Luskin, R., Fishkin, J., & Jowell, R. (2002). Considered opinions: Deliberative polling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455-487.
- McLeod, J. M. (2000). Media and civic socialization of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 45-51.
- McLeod, J. M., Scheufele, D. A., & Moy, P. (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15-336.
- Moy, P., & Gastil, J. (2006). Predicting deliberative conversation: The impact of discussion networks, media use, and political cognitions. *Political Communication*, 23(4), 443-460.
- Mutz, D. C. (2002a).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 Mutz, D. C. (2002b).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838-855.
- Neuman, W. R., Bimber, B., & Hindman, M. (2011). The Internet and four dimensions of

- citizenship. G. C. Edwards III, L. R. Jacobs, and R. Y. Shapiro (Eds.), *Th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the media*, (pp. 22-4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ngree, R. J. (2007). How messages affect their senders: A more general model of message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deliber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39-461.
- Reid, S. A. (2012). A self-categorization explanation for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62(3), 381-399.
- Robinson, J. P., & Levy, M. R. (198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news comprehen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50(2), 160-175.
- Rojas, H. (2008). Strategy versus understanding: How orientations toward political conversation influence political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35(4), 452-480.
- Rojas, H. (2010). "Corrective" actions in the public sphere: How perceptions of media and media effects shape politic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3), 343-363.
- Rojas, H., & Puig-i-Abril, E. (2009). Mobilizers mobilized: Information, expression,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902-927.
- Scheufele, D. A. (2000). Talk or conversation? Dimensions of interpersonal discuss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4), 727-743.
- Scheufele, D. A., Hardy, B. W., Brossard, D., Waismel-Manor, I. S., & Nisbet, E. (2006). Democracy based on difference: Examining the links between structural heterogeneity, heterogeneity of discussion networks, and democratic citize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56(4), 728-753.
- Shah, D. V., Cho, J., Eveland, W. P. Jr., & Kwak, N. (2005). In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digital age: Modeling Internet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2, 531 - 565.
- Shah, D. V., Cho, J., Nah, S., Gotlieb, M. R., Hwang, H., Lee, N., Scholl, R. M., & McLeod, D. M. (2007). Campaign ads, online messaging, and participation:

- Extending the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676-703.
- Shah, D. V., Jack M. McLeod & Lee, N. (2009). Communication competence as a foundation for civic competence: Processes of socialization into citizenship, *Political Communication*, 26(1), 102-117.
- Sotirovic, M., & McLeod, J. M. (2001). Valu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8(3), 273-300.
- Sunstein, C. R. (2006). *Infotopia: How many minds produce knowled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orcato, M., & Maldonado, G. (2014). Revisiting the dark side of political deliberation: The effects of media and political discussion on political interest. *Public Opinion Quarterly*, 78(3), 679-706.
- Tsfati, Y., & Cohen, J. (2005). The influence of presumed media influence on democratic legitimacy: The case of Gaza settlers. *Communication Research*, 32(6), 794-821.
- Weber, L. M., & Bergman, J. (2001). *Who participates and how? A comparison of citizens "online" and the mass public*.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Las Vegas, NV, March 15 - 17.
- Wellman, B., Haase, A.,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36 - 455.
- Wyatt, R. O., Kim, J., & Katz, E. (2000). How feeling free to talk affects ordinary political conversation, purposeful argument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1), 99-114.
- Yamamoto, M., & Nah, S. (2018). Mobile information seeking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differential gains approach with offline and online discussion attributes. *New Media & Society*, 20(5), 2070-2090.

최초 투고일 2018년 10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28일
 논문 수정일 2019년 4월 4일

Abstract

Enhancing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Internet Conversation in South Korea

June Woong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 Hyuk Lee

Kyunghee University

Sangwon Lee

Kyunghee University

Hyunjung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itizens' reading and writing on the Internet brought about citizens' learning and participation during the spring of 2017 in South Korea. Drawing on Katz's model of 'news-conversation-opinion-action',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empirical studies exploring conditions under which conversation invites political knowledge and participation, this study posited that consumption of news media and subsequent evaluation of news content could vitalize conversation among citizens. It is also hypothesized that conversation would lead to knowledge acquisition and enhanc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A set of panel data comprising of 1,099 pre-test respondents and 1,201 post-test respondents was gathered from a panel survey during May and June 2017.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consumption of news media had effects on Internet reading and face-to-face conversation. In particular, ideological diversity of news consumption as well as consumption of liberal news media led to increases in Internet reading and face-to-face conversation. However, no comparable finding was obtained for Internet writing.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ore negative the evaluation of news fairness, the more likely the respondents were to read fellow citizens' writings on the Internet. By contrast, the more positive the

evaluation of news fairness, the more likely the respondents were to engage in face-to-face conversations with fellow citizens. Third, Internet reading and face-to-face convers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learning from news media where Internet writing showed a negative effect.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Internet writing and face-to-face convers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participation i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t is also found that Internet reading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ole of Internet and face-to-face conversation in activ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in South Korea.

Keywords: citizenship, fairness, conversation, political learning, participation